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인포그래픽스

경남 신혼부부 특성[1)]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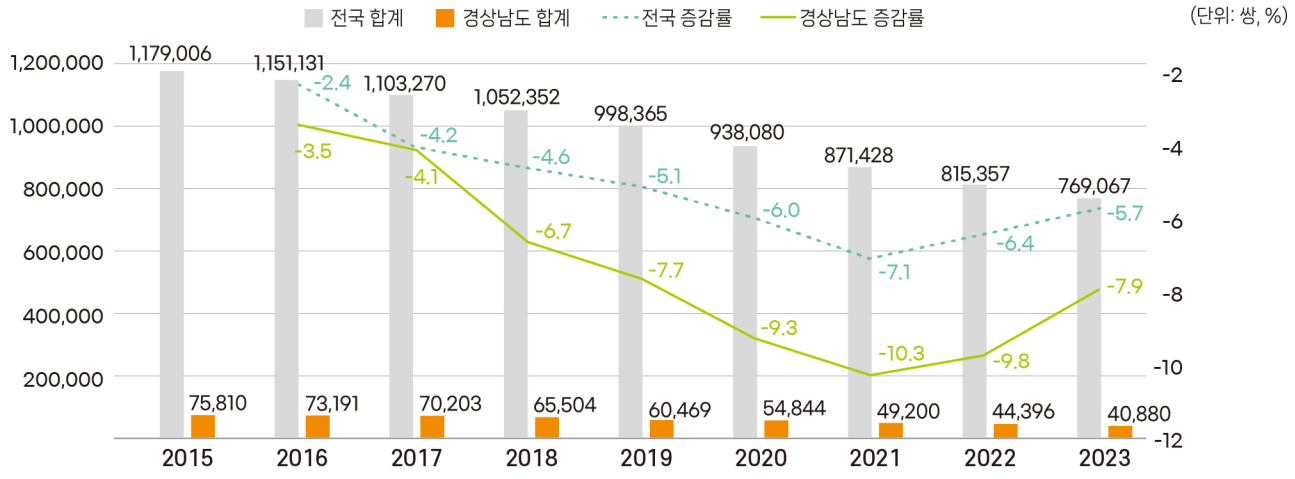
Vol. 49
2025. 10

오 지 혜 연구위원

1 신혼부부 수 및 증감률

전국 및 경남 신혼부부 수와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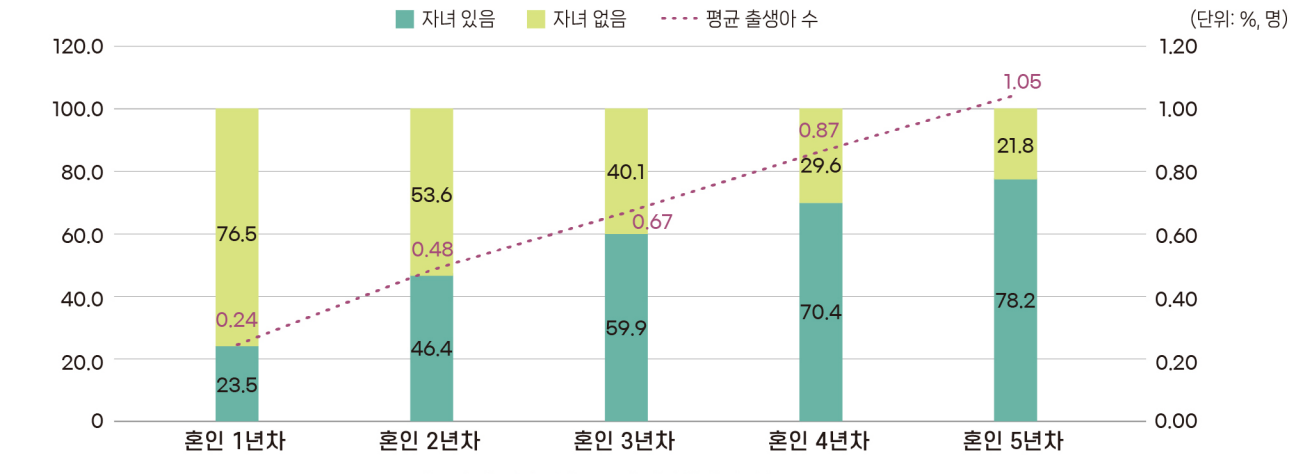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2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며 완만한 감소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경남의 경우 전국보다 빠르고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반 이후로는 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심화됨. 특히 2020년대 초반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신혼부부 감소가 두드러졌고, 이후에도 완화 추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1] 전국 및 경남 신혼부부 수와 증감률

2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자녀유무

- 혼인 초기(1년차)에는 대부분 자녀가 없으나, 2년차부터 과반 이상이 자녀를 출산하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혼인 5년차에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자녀를 출산하였고, 평균 출생아 수도 1명을 넘어섬
- 경남 신혼부부는 혼인 직후보다 혼인 2~3년차 사이에 첫 출산이 집중되고, 혼인 5년차 이내에는 대부분 자녀를 갖게 되는 전형적 출산 패턴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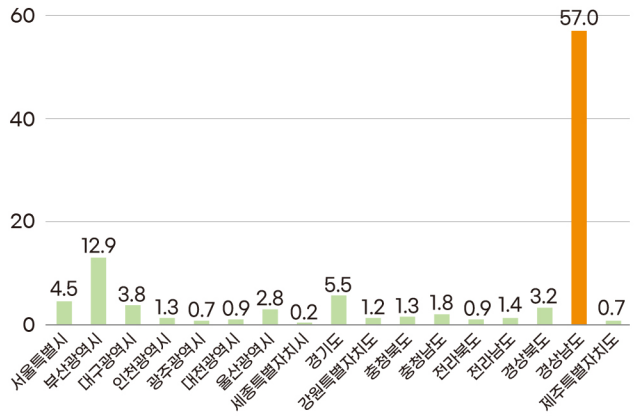
[그림 2] 경남 신혼부부 혼인연차별 자녀유무

1)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1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혼 부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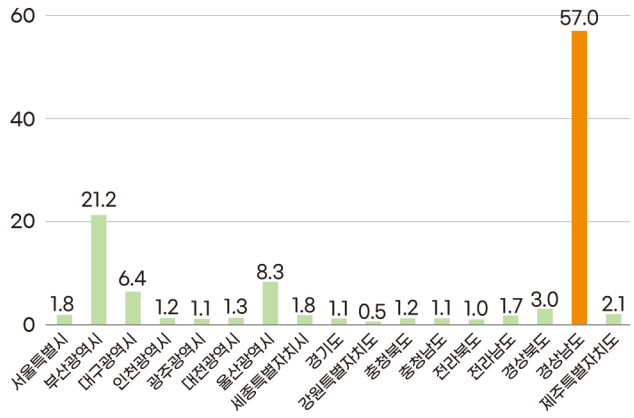
3 부부간 거처가 다른 경우 지역별 신혼부부 현황

- 아내가 경남에 거주할 경우 남편이 도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57.0%)가 가장 많음. 이는 신혼부부가 같은 경남권에 기반을 두되, 거처는 분리된 사례가 많음을 의미함. 그 외에는 부산·울산·대구 등 인접 대도시(약 20%)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7%대)으로 분포가 이어져 지역적 근접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결혼 이후 거주 분리에 반영되어 나타남. 특히 부산은 12.9%로 경남 여성 배우자의 남편 거주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지역으로 확인됨
- 남편이 경남에 거주할 경우, 아내 역시 도내 다른 시군 거주(57.0%)가 가장 많으며, 이어 부산(21.2%)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함. 울산(8.3%)과 대구(6.4%) 역시 인접 대도시라는 점에서 주요한 분리 거주지로 확인됨. 한편, 아내가 경남에 거주할 경우와 달리 남편이 경남에 거주할 경우 아내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단위: %)



[그림 3] 남편 시도(아내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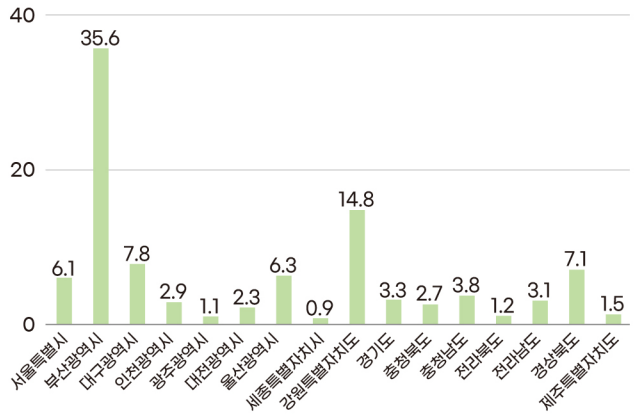


[그림 4] 아내 시도(남편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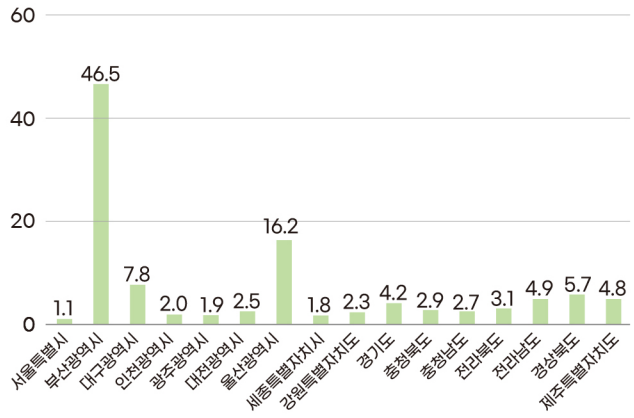
4 다른 시도로 이동한 신혼부부의 지역별 이동 현황

- 경남에 거주했던 신혼부부가 1년 후 다른 시도로 이동한 경우, 부산(35.6%)과 경기(14.8%)로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수도권(서울 6.1%, 경기 14.8%, 인천 2.9%)을 합치면 약 23.8%로, 수도권 집중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남.
- 경남으로 전입한 신혼부부의 출신지는 부산(46.5%)이 절반에 가깝고, 이어 울산(16.2%)이 두 번째이며, 대구(7.8%), 경북(5.7%)이 뒤를 이음. 이 네 곳(부산·울산·대구·경북)을 합치면 76.2%로, 전입의 대다수가 영남권 인접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음

(단위: %)



[그림 5] 1년 전 경남 거주 후 현재 타시도에 거주 중인 경우(현 거주지)



[그림 6] 1년 전 타시도 거주 후 현재 경남에 거주 중인 경우(1년 전 거주지)

본 인포그래픽스의 저작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www.gnwff.or.kr